

# 광주·전남 폐업 주유소 5년 연속 증가

### 경영난에 작년 40곳 문닫아... 경기 제외 최다

### 소비 둔화·알뜰 주유소 확산·과다 공급 원인

정유업계의 '고난의 행군'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광주·전남 지역 역시 지난해 한 해만 주유소 40개가 폐업하고, 휴업상태인 곳도 60여 곳이 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경영난이 심각한 것으로 분석됐다.

12일 한국주유소협회 광주·전남 지부에 따르면 경영난으로 폐업을 선택한 주유소는 2008년 이후 5년 연속 증가하면서 지난해는 40곳이 넘었다.

2013년 12월 기준으로 협회에 등록된 업소 수가 광주와 전남이 각각 326개와 전남 995개로 확인된 상황에서 전체의 3%가 폐업한 셈이다. 이는 한국주유소협회가 발표한 지난해 전국 주유소 폐업업소 310곳 중 지역별로 경기도(41곳)에 이어 두번째로 높은 수치이다.

업계는 특히 전남 지역의 경우 업소 간 경쟁이 치열했고, 도로 개설 등 입지 환경 변화에 따라 폐업이 많았

다고 분석했다.

이처럼 광주·전남지역 주유소들의 폐업이 늘고 있는 이유는 고유가에 따른 소비 둔화와 값이 저렴한 알뜰 주유소 확산, 수요 대비 과다공급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작년 말 기준으로 휴업한 주유소도 61곳에 달했다. 휴업은 폐업 자금조달 없이 장사를 접지 못하는 주유소가 임시방편으로 택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경영이 악화돼 폐업을 하려 해도 주유시설 철거 비용만 최대 1억원이 소요되고 있어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인 것도 문제다.

주유소협회는 폐업이나 휴업을 결

정하지도 못하고 재정난에 처한 일명 '한계 주유소'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업계는 자발적으로 구조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한계 주유소를 지정, 지원책을 정부에 요구했지만 답이 없는 상태다.

업계 관계자는 "개점휴업상태인 주유소도 상당수에 이르고 있어 지역에서 휴폐업하는 주유소는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선 주유소들뿐 아니라 기름을 공급하는 대규모 정유업체들도 칼바람을 피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실적 발표를 한 정유3사의 2013년 영업이익률은 1~2%에 그쳤

다. SK이노베이션은 2011년 영업이익이 2조9594억원으로 영업이익률 4.3%를 기록했으나 작년 영업이익은 1조3818억원(이하 이익률 2.1%)으로 쪼그라들었다. GS칼텍스와 에쓰오일도 사정은 비슷해 각각 영업이익 9001억원(2.0%)과 3992억원(1.3%)으로 적자나 간신히 면할 정도의 마진을 손에 쥐었다.

업계는 실적 부진의 원인으로 글로벌 경기 회복 지연으로 전반적인 석유수요가 감소한 가운데 유가 변동성이 커져 재고 관리 부문에서 손실을 냈고, 정제 마진은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 스마트폰 보조금 지급요구권 등 심의 조정

### 소비자원, 오늘 조정부회의

한국소비자원(www.kca.go.kr)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오는 13일 정부광주지방법합동청사에서 '광주지방 조정부회의'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올 해 첫 지방 조정부회의로 증권방송 중도해지에 따른 가입비 환급 요구와 약정한 스마트폰 보조금의 지급요구권 등 호남지역에서 발생한 소비자분쟁 6건을 심의·조정한다.

이날 회의는 이병주 상임위원(한국소비자원 상임위원)의 주재로 소비자 대표로 공경화 위원(광주전남

소비자시민모임 대표)과 사업자 대표 이현석 위원(대한상공회의소 상의역), 변호사 국중돈 위원(국중돈법률사무소 대표) 등이 참석한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은 결정서를 송달, 교부받은 당사자가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거부하는 경우 표시하지 않으면 조정이 성립돼 재판상 화해, 즉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건수는 2010년 이후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해는 3249건이 접수돼 전년(1841건) 대비 76.5%가 증가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 소상공인 자금·보증업무 상담

### 오늘 광주에서 설명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광주전남지역본부는 지역 소상공인(전통시장)을 대상으로 13일 오후 2시 광주대 호심관 3층에서 '2014년 소상공인 지원정책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를 시작으로 17일 오후 2시 목포 전남중소기업지원센터 2층, 18일 오후 2시 순천 전남도청 동부청사 2층에서도 순회 설명회를 갖는다.

이번 설명회는 제조업 위주의 일반 중소기업 정책과 서비스업 중심의 소상공인 정책과의 수혜대상 차이를 고려해 이진 진행중

인 중소기업 시책설명회와는 별도로 열린다. 정보부족으로 인해 정부시책 참여에 애로를 겪고 있는 예비창업자 및 소상공인의 시책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 내용은 올해 중소기업청 소상공인 자금 등 지원정책과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업무 등에 대해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기관이 설명한다.

질의·응답 시간을 갖고, 행사장 입구에 전문상담반을 배치해 애로상담 등 수요자 중심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문의 062-366-2122.

/김대성기자 bigkim@

## 대보름 잡곡·견과류 넉넉하게 드세요

팥·차조 가격 작년보다 절반 하락  
국산 팥콩 13%·밤 34%나 떨어져



이번 대보름엔 오곡밥을 넉넉하게 준비해도 될 것 같다. 오곡밥 재료인 잡곡과 부럼거리 가격이 지난해보다 폭 떨어졌기 때문이다.

12일 유통업계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정월 대보름을 앞두고 잡곡과 견과류 시세가 전년 대비 최대 절반 수준으로 하락했다.

잡곡은 팥 80kg 상등급 한 가마의 가락시장 도매가가 지난해보다 46.7% 떨어진 45만원이었고, 차조도 70kg 상등급 한 가마가 31만원으로 46.1% 내렸다. 서리태와

참쌀도 지난해보다 각각 38.4%, 3.5% 가격이 떨어졌다.

부럼으로 사용되는 국산 팥콩은 산지가격이 30kg마대에 13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13.3% 하락했고, 밤도 가락시장 도매가가 34.9%나 급락했다.

다만 오곡밥에 곁들이는 말린 나물류는 다소 가격이 올라, 견고사와 견취나물 도매가는 지난해보다 각각 15.4%, 10.0% 상승했다.

대형마트 판매가는 롯데마트 기준 참쌀이 4kg들이 한 봉에 1만 8300원으로 지난해보다 7.6% 내

렸고, 서리태와 팥은 500g에 각각 1만 500원과 9000원으로 각각 23.9%, 34.9% 하락했다.차조와 수수는 모두 500g에 7천500원으로, 지난해보다 15.7%, 16.7% 낮았다. 밤은 800g 한 봉에 4천 원으로 전년보다 48.7%, 팥콩은 100g에 1800원으로 9.1% 가격을 내렸다.

마트 측은 4인 가족 기준 오곡밥 재료와 부럼, 나물류를 구입하는 데 드는 비용을 계산하면 모두 11만 8530원으로 지난해보다 9.9%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 초콜릿 선물세트 볼티

밸런타인 데이를 앞두고 12일 롯데백화점 광주점 지하1층 식품관에 다양한 초콜릿 선물세트가 선보였다. 수제 초콜릿부터 인형과 함께 포장된 초콜릿세트까지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다.

밸런타인 데이를 앞두고 12일 롯데백화점 광주점 지하1층 식품관에 다양한 초콜릿 선물세트가 선보였다. 수제 초콜릿부터 인형과 함께 포장된 초콜릿세트까지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 보험사 텔레마케팅 내일부터 영업 재개

금융권의 고객 정보 유출에 따라 중단됐던 보험회사의 텔레마케팅(TM) 영업이 14일부터 일제히 재개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12일 "보험사들이 제출한 최고경영자(CEO) 확인서에 대한 검토를 거쳐 14일부터 영업 재개를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 보험사들은 앞서 지난 11일 정보 제공 동의 여부 등이 확인된 고객 명단과 해당 정보의 합법성에 대한 최고경영자(CEO) 확인서를 금융당국에 제출했다. 확인이 늦어진 일부 보험사는 12일에도 확인서를 냈다.

이번 TM의 영업 재개는 지난날

27일 영업이 중단된 이후 18일 만이다.

보험사는 우선 합법적인 수집에 대한 확인이 끝난 기존 고객 정보에 대해서만 영업을 할 수 있다. 이후 추가 명단에 확인을 거쳐 영업을 확대하게 된다.

금융당국은 전화 영업을 풀어주는 대신 CEO 확인 내용에 오류가 있을 경우 엄중히 제재한다는 계획이다.

/연합뉴스

## 1월 실업률 광주 2.7%, 전남 2.4%

### 호남통계청, 고용동향

지난 1월 광주지역 실업률이 2.7%, 전남은 2.4%로 나타났다.

12일 호남지방통계청의 '2014년 1월 광주·전남지역 고용동향'에 따르면 광주지역 고용률은 57.8%로 지난해 같은달 대비 1.5%포인트 상승했다.

취업자는 72만 2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 대비 2만 7000명(3.9%) 증가

했다. 실업률은 2.7%로 지난해 같은 달 대비 0.3%포인트 상승했다.

1월 전남지역 고용률은 58.3%로 지난해 같은 달 대비 1.5%포인트 하락했다.

취업자는 86만 7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1.5%포인트 하락했다. 실업률은 2.4%로 지난해 같은 달과 같았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SINCE 1989

# 이태리 가구 전문점

☎ 1899-0240

홍스페이스 가구빌딩

NAVER **홍스페이스** 광주광역시 동구 장동 58-15

보약, 홍삼은

## 북고당 한약방

가족의 건강~ 환한 웃음~ 지켜 드립니다.

6년근 홍삼 60포 → 15만원 (주문판매)

홍삼 검사품 생산지 직거래로 저렴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179-59 T. 062-369-9227

농심역

▶ 북고당 한약방

▶ 두충오가피

활기찬 삶! 생활의 활력소!

60포 → 120,000원

농협 653-12-003100  
예금주 박주환